



이은애(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권력의 폭력성

성서는 강간당한 여자들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한다. 남편의 신상 안전을 위해 집단 성폭행에 내몰려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한 여자(삿 19장), 가족들이 거주하는 땅의 지배자에 의해 강간당하고 형제들에 의해 복수의 수단이 된 디나(창 34:2 이하), 그리고 궁중에서 이복 오빠에게 강간당한 다윗의 딸 다말(삼하 13:1-22) 등이 그것이다. 여자들에게 행해지는 이 성적 폭력 뒤에는 복수를 명목으로 하는 남자들의 물리적 폭력이 뒤따른다. 즉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피해 여성의 경험과 주체적 참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성들의 감정과 이해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하에 또 다른 남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가해와 폭력 문제는 구약성서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사

한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사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폭행, 강간, 살인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것을 예방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이 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¹ 그런데 이 폭력은 특히 권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권력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설명은 주체 간의 관계로서의 권력이다.² 즉, 권력은 ‘지배하는 힘’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우월한 주체가 종속된 주체로 하여금 그의 자유의지로는 하지 않을 행위를 하게 하여 의도된 결과를 이끌어냈을 때 지배하는 힘이 작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월한 주체는 직접적인 힘의 사용이나 의도, 설득하는 과정 없이도 종속된 주체의 행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 ‘지배하는 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³ 즉, 권력은 구체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월한 주체에게 불리한 쟁점을 사전에 분쇄해버리거나 혹은 종속된 주체를 의도적으로 세뇌시켜버림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에서 대립과 분쟁을 소실시켜버리는 권력⁴으로도 권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에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권력은 왕정의 시작과 함께 전면에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무엘의 ‘왕의 제도’(미쉬파트 함

1 구약성서의 언약법전(출 20:22-23:33)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폭행(출 21:22)이나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출 22:15이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실제적 방법들을 조건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살인(출 21:12-13)에 대해서는 그 의도성에 따라 사형법으로 처벌하는 정언법 형태로 명령하여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들을 금하고 있다. E. Otto, *Theologische Ethik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Kohlhammer, 1994), 24-29, 35-38.

2 가장 전형적인 권력개념은 1950년대 로버트 A. 달(Robert A. Dahl)에 의한 것으로 ‘A가 B로 하여금 B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A는 B에 대해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스키타 아쓰시, 「권력」(이효윤 역), (서울: 푸른역사, 2015), 10-11.

3 레이몬드 A. 벨리오티, 「권력의 조건: 억압, 복종, 저항 그리고 소통에 관하여」(한누리 역), (고양: 지금이책, 2017), 32-33. 원제는 Raymond Angelo Belliotti, *Power: oppression, subservience, and resistance* (New York: SUNY Press, 2016).

4 루크스(Steven Lukes)가 주장한 ‘삼차원적’ 권력 이론으로 A의 의도로부터 독립한 B의 의도가 소멸됨으로써 A와 B 사이의 대립이 사라져 B는 이제 이전의 권력관에서 전제되어 있던 확실한 의도를 가진 존재가 아니게 되지만 A는 계속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스키타 아쓰시, 앞글, 13-14.

멜레크, מֶלֶךְ הַמְּשָׁלָה, 삼상 8:9)에 대한 경고(삼상 8:10-18)는 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보여준다.⁵ 왕의 제도는 반봉건적인 가나안의 지배 구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⁶ 사무엘은 왕을 ‘취하는 자’로 묘사한다. 왕은 세금과 토지압수, 징병, 강제 노동 등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취할 것/빼앗을 것’(라카흐, לָקַח, 삼상 8:11,13,14,16)이고⁷ 결국 백성들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삼상 8:17). 왕과 백성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왕권 제도의 폭력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준다.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삼상 8:18). 부르짖음(자아크, צָעַק)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출 2:23)이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그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 것이고 그들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시리라는 경고인 것이다.⁹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국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군사 지도자 출신 다윗의 강력한 왕권과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의 중앙집권화와 더불어 법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김으로써(삼하 6:2-19) 종교적 중앙집권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

5 클레인은 신명기 사가의 왕권에 대한 세속적 평가가 18절 이후 신학적 평가로 바뀐다고 본다.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4), 154. 원제는 Ralph W. Klein, *I Samuel* (Waco: Word Books, 1983).

6 이희학,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95.

7 ‘취하는/빼앗는(to take)’ 왕에 대한 경고는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일(삼하 11:2-5)이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왕상 21:7)로 증명된다.

8 레위기의 성결법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금지한다(레25:39 이하).

9 크뤼제만, 슈틀쯔 등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상 8:11-17을 대표적인 반왕권적인 글로 이해한다. F. Crüsemann, *Der Widerstand gegen das Königtum. Die antiköniglichen Texte des Alten Testaments und der Kampf um das frühen israelitischen Staat* (WMANT 4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69-73. 프리츠 슈틀쯔, 「사무엘상, 하」(박영욱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91-99. 원제는 Fritz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BK.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그러나 이 글은 위 논문에서 삼상 8:11-17의 본문이 왕정 도입 후에 첨가된 글로 왕과 백성과의 계약 의식에 기반하는 ‘왕의 권리’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라고 주장한다. 이광재, “사무엘상 8장 11-17절의 왕의 권리: 왕의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글”, 「구약논단」66 (2017), 14-41.

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는데(삼하 5:4-5) 사울 왕국이 하나의 민족 왕국이었다면 다윗 왕국은 '다윗'이라는 인물의 개인적 능력과 그의 군사적 힘에 종속되고 결합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연합한 '영토적 국가(territorial state)'¹⁰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왕국의 형성은 대내적으로 국가 질서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게 했고 대외적으로는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거나 외교적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한편,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왕권은 아버지, 남성, 연장자의 권위를 우선하는 가부장적 질서와 제도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정치적 왕족이나 귀족 등 새로운 사회계층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경제적 빈부의 격차나 지파 간의 갈등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사실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지배 체제는 전쟁과 폭력과 살상 위에 세워진 것이며 왕국의 제도적 질서 안에서는 또 다른 폭력과 살인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성서의 성폭력 사건을 권력과의 관계 하에서,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 드러나는 각종 성범죄 사건들 중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성서적 해답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력한 왕권을 이룬 다윗 시대에 그의 왕궁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부권적, 제도적 권력이 한 여성의 몸과 정신,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크고 잔인한 폭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이 사건은 한 편으로는 인간 왕권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야웨 하나님 유일의 왕권을 주장하는 성서 기자의 교훈적, 비판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것이다.

10 게오르크 포오러, 「이스라엘 역사」(방석종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9), 133. 원저는 Georg Fohrer, *Geschichte Israels: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Heidelberg: Quelle und Meyer, 1982).

2. 다말 이야기(삼하 13:1-22)의 문학적 맥락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말 이야기는 로스트에 의해서 구분된 '다윗의 왕위 계승사'(삼하 9장-왕상 2장) 안에 위치해 있다. '다윗의 왕위 계승사'는 다윗 왕국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솔로몬에게로의 왕위계승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왕위 등극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다.¹¹ 이 단락의 문학적 통일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편집층들이 있어서 다윗 왕국에 비우호적인 기본층과 솔로몬 왕국의 신학적, 정치적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이차적 층이 결합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¹² 반대로 친다윗적인, 궁중의 지혜문학에 뿌리를 두고 솔로몬 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문서로 해석되는 등¹³ 다양한 주장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단락이 매우 다양하고 비통일적인 문학적 내용과 신학적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회학은 이 부분을 법케 설화의 결론부(삼하 6장)와 나단의 신탁 보도(삼하 7장)와 연결시켜서 다윗 왕조의 미래에 대한 보장과 연결시켜 보고 있지만¹⁴ 필자는 이 단락이 오히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왕정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왕정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이 '다윗의 왕위 계승사' 안의 다말 이야기(삼하 13:1-22)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왕위 계승권을 놓고 벌이는 장남 암논과 차남 압살롬 사이의 대결 구도 안에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사무엘하 13장은 결코 암논과 다말의 '비극적인

11 L. Rost, "Die Überlieferung von der Thronnachfolge Davids", in ders., *Das kleine Credo und ander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Heidelberg: Quelle&Meyer, 1965), 119-253.

12 E. Würthwein, *Die Erzählung von der Thronfolge Davids - Theologische oder politische Geschichtsschreibung* (Theologische Studien 115;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4), 1ff.

13 F. Crüsemann, *Der Widerstand gegen das Königtum*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6), 180 이하.

14 이회학, *윗글*, 123.

리브스토리'¹⁵가 아니며 또한 다말에 대한 압논의 행동을, 압살롬을 견제하는 심리적, 정치적인 배경에서만 설명한다든지 사건 뒤에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란이나 압살롬의 왕위계승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비합법성의 전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의 많은 아내들에 의해 태어난 이복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성폭력사건은 남성 중심적, 공동체 중심적 해석이나 은유적 해석에서 벗어나 피해자 여성 중심으로 다시 서술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정과 다윗 왕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왕정의 부정적인 결말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다말이야기는 다윗 왕정 가운데 밋세바에 대한 다윗의 성폭력 사건과 연결되면서 여러 아들들 사이의 세력다툼과 왕위 쟁탈전의 중심 사건을 이루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왕위 계승자인 압논을 죽인 이유와 전제가 되고 후에 압살롬이 반역하여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배경으로 위치해있다. 밋세바 사건으로 시작된 다윗 왕권의 성적 타락은 가족 내 성폭력, 형제 살해, 친부 축출 등 계속적인 극한 범죄로 이어진다. 밋세바 사건(삼하 11장)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위치에서 '빼앗는 자'(삼상 8:14-17)가 되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빼앗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토록'(아드 올람, עַד-עוֹלָם) 다윗의 집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삼하 12:10) 심판을 내린다.¹⁶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친 것처럼(삼하 12:9) 하나님이 칼로 그의 집안을 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삼하 7:4-17)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삼하 11:25)고 우리아의 죽음을 합리화했는데 이제 그 칼은 다윗의 집안을

15 손준희, "לְבִישׁוֹתַי אֲנִי אֵלֶּיךָ 다윗 왕위 계승 순위의 뒤틀림", 『구약논단』 60 (2016), 101-102.

16 김희권은 삼하 13장의 근친상간과 형제 살육 사건이 나단의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인 '칼이 다윗의 집을 베는'(삼하 12:10b) 첫 사건이라고 본다.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하』 (서울: 복있는 사람, 2009), 171.

향해 있고 결국 다윗의 아들인 암논과(삼하 13:28-29) 압살롬이 차례로 죽임을 당하고(삼하 18:14-15) 다른 아들 아도니아까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로(왕상 2:25) 이어진다. 요담의 우화(삿 9:7-15)에서처럼 왕정의 권력은 마치 불을 내뿜는 가시나무같이 백성에 대한 억압과 학대 등의 폭력을 동반하는 것이며,¹⁷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들이자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던 아비멜렉(삿 9:5-6)의 경우처럼 왕정은 형제 살인과 성읍 주민들의 대량 학살(삿 9:34이하) 등과 같은 폭력 위에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엘하 13장 다말 이야기는 밋세바 사건(삼하 11장)과 함께 다윗 왕정의 비극적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삼하 12:10-13) 왕정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비판적인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말 이야기 단락을 하나의 완결된 문학 단위로 보고, 사건의 중심에 있으나 많은 해석에서 제외되었던 성폭력의 피해자인 다말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따라 해석해 나갈 것이며 왕정 제도와 가족 관계라는 비가시적 권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 지체와 어리석음, 피해자와 가해자 등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관점을 통해 이야기의 의도와 본질을 찾아내도록 시도할 것이다.

3. 다말(삼하 13:1-22): 궁중 성폭력의 생존자

다말 이야기는 다윗이 암논 자손의 도시 랍바를 쳐서 크게 이기고 금과 보석으로 된 왕관 등의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기사(삼하 12:26-31) 뒤에 이어진다. 삼하 13장은 다윗의 아들들, 암논과 압살롬, 그

17 가시나무는 막대기로 사용하거나 때릴 때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가시나무의 통치는 불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워버리겠다는 위협적인 협박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이것은 왕정 제도와 왕권의 무용성과 오만함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렌트 버틀러, 「사사기」(조호진 역), (WBC 8; 서울: 솔로몬, 2011), 606-607. 원제는 Trent C. Butler, *Judges* (WBC 8;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6).

리고 딸 다말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기록한다.¹⁸ 1-2절에는 세 등장인물과 그 관계가 소개된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에 게서 태어난 아들인데(삼하 3:3) 그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자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은 아름다운 다말에게 마음을 빼앗겨 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3-14절에는 암논의 친구 요나답의 조언에 따라 암논은 다윗 왕에게 청하여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억지로 성폭행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으며 15-19절에는 성폭행 후 갑자기 다말을 미워하는 암논과 다말의 대화, 그리고 결국 암논의 집에서 비참하게 울며 쫓겨나는 다말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한다. 20-22절에는 상황을 알게 된 압살롬과 다말의 대화,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오빠 압살롬의 반응이 나오며 23절 이하에는 만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것은 다말을 욕보인 것에 대한 복수였다고(삼하 13:32) 말한다.

1)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 딸과 그의 남성 가족들

다말은 다윗 왕의 딸, 즉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의 딸이고 공주였으며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런데 본문은 암논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 소개하지만(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암논' 삼하 13:1) 다말은 다윗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누이라고 말한다. 다말을 다윗 왕보다는 압살롬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압살롬과 암논의 대결 구도를 설명하려는 저자의 의도로 볼 수 있지만¹⁹ 다윗에게 있어서 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한 의미였음을 드러내거나 당시 가족 질서 안에서 딸보다 아들이 우선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1절에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아름답다'(야파, נְכוּנָה)는 것이다. 다말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처녀성(삼하 13:2)과 연결되어 암논을

18 필리스 트리블은 삼하 13:1-22 단락을 하나의 완결된 문학적 단위로 보며 강간(D)을 중심으로 사건 이전의 세 개의 에피소드(A,B,C)와 사건 이후 세 개의 에피소드(C',B',A')로 이루어진 동심원적 구조로 해석한다. Phyllis Trible,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37-63.

19 A. A. 앤더슨, 「사무엘하」(권대영 역), (서울: 솔로몬, 2001), 299.

병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고(삼하 13:2) 사랑이나 결혼의 이유가 아니라 성적인 소유욕의 근거가 된다.²⁰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다말의 말(삼하 13:13)에 따르면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복 남매 사이의 결혼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²¹

다말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성적인 위험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²²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아하브, אַחָב)는 표현에서 아하브는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성을 성적 매력의 대상으로 사랑하거나 혹은 단순히 성행위를 말할 때 사용된다.²³ 암논이 병나게 된 것은 순수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성적 욕망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그의 여동생이었고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다. 결혼하지 않은 다말은 가족 내에서, 특히 친오빠 압살롬의 권위 아래 특별한 보호를 받았을 것이고 그것은 암논을 괴롭혔으며 병들게 했다. 암논에게 그 여자는 사람이나 여동생이 아니었고 가지고 싶고 그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무엇(something)일 뿐이었다. 그녀의 생각이나 원하는 바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암논을 병들게 했던 그 생각은 이미 폭력과 강간의 시작이었다.

암논이 다말에게 품은 욕망을 실현하도록 도운 인물들 역시 주변 남자들이

20 이은애,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아름다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2011), 9.

21 아브라함이 이복동생인 사라와 결혼한 것(창 20:12)에 비추어보면 오경 법전 중에서 남매 사이에 성행위와 결혼을 금지하는 법(레 18:11, 19; 20:1; 신 27:2 등)은 포로 이후에 첨가된 법으로 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 앤 해킷, “사무엘상하”, 258. in: 캐롤 A. 뉴스/샤론 H. 린지 엮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구약 편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는 Carol A. Newsom & Sharon H. Ringe, *Women’s Bible Commentary* (Expanded Edi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22 아름다움이 성적인 욕망의 이유가 되는 것은 단지 밧세바와 다말 등 여성의 경우뿐만 아니라 요셉의 경우(창 39:6 이하)에서도 나타난다. 반면, 사울, 다윗, 압살롬 등 남성의 아름다움은 주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나 왕권에 합당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은애, 윗글, 10-17. 특히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대한 언급이 압살롬의 반란 직전에 언급되는 것은(삼하 14:25) 차기 왕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말하는 전략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Michael Avoiz, “The Motive of Beauty in the Books of Samuel and Kings”, *Vetus Testamentum* 59 (2009), 351-352.

23 김호경, 『여자, 성서 밖으로 나온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54.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창 24:67),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호 3:1) 등 다른 본문에서도 ‘아하브’의 성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었다. 암논의 친구이자, 사촌, 즉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매우 지혜로운 자(하삼 메오드, מֵאוֹד הַחָכָמִים)²⁴로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교활한 책략가, 모사꾼을 떠올리게 한다.²⁵ 그는 남자 사촌 암논을 위해 나쁜 계획을 세웠고²⁶ 그 조언에 따라 암논은 왕이며 아버지인 다윗에게 간청했으며 다윗은 그 간청을 받아들여 다말에게 ‘암논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한다. 요나답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의 힘을 통해 암논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고 충고했으며 다윗 왕은 자신의 딸을 위험 속으로 가게 했던 것이다. 다윗의 말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라”(7절)는 암논과 다말을 가족의 테두리 안에 넣음으로써 다말에게 품고 있는 암논의 욕정을 은폐하고 다말의 비극적인 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두 명의 남성 조력자는 남성의 입장에서 한 여성을 위험 속으로 함께 밀어 넣었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수단이요 방법이다. 여성은 고대에도 현대에도 쉽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 그가 왕의 딸이고 공주여서 귀하고 높은 신분일지라도 여자의 아름다움이나 채색옷(삼하 13:19)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암논은 다말을 인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소유하고 쟁취하려는 왜곡된 욕망을 가졌으며 결국 다말을 속이고 그의 집으로 그의 침실로 끌어들었으며 거부하는 그녀를 힘으로 제압하여 성폭행한다. 암논의 이기적인 욕망과 강제적인 폭력은 성폭행 후 급작스런 변심을 가져온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는 욕심은 목적을 달성한 후엔 미움과 환멸로 바뀌게 된 것이다. 암논은 다말을 ‘이것’(조트, זֶה)이라 부르며 마치 거추장스

24 개역개정에서는 ‘심히 간교한 자로, 새번역에서는 ‘아주 교활한 인물’로 번역되어 있다.

25 이후 그의 비윤리적인 계획은 ‘매우 지혜로운’이라는 표현이 도덕적 능력이나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단순한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A. A. 앤더슨, *윗겔*, 299-230.

26 베이컨은 삼하 13장 후반부에서(삼하 13:23이하) 요나답이 암살물의 복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암살물의 집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알린 것(삼하 13:32-33)에 근거해서 처음엔 암논의 ‘친구’, 즉 공식적 조언자였으나 나중에는 암살물의 ‘친구’가 된, ‘미중 스파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Shimon Bakon, “Jonadab, ‘Friend’ of Amnon”, *Jewish Bible Quarterly* 43/2 (2015), 104-105.

럽고 더러운 물건을 치우듯이 다말을 내쫓고 문지방을 지르라고 명령한다. 성폭력에 의해 짓이겨진 여자 다말을 물건 취급하며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암논 개인의 악함이나 변덕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왕국시대에 권력을 가진 왕자로서 그는 첫아들이었기에 아마도 아버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황태자의 권한을 가졌을 것이고 그에게는 왕의 딸이며 자신의 누이이기도 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물건처럼 내버릴 수 있는 탈법적 권력과 비호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암논의 성폭력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왕가의 타락한 권력의 문제와 결합된 권력형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⁸ 그것은 왕정 하에서 왕권과 연결된 초법적 권력이며 또한 가족과 친족이라는 이름의²⁹ 테두리 안에 내재된 강력한 권력이다.

2) 다말의 지혜로운 말과 암논의 악한 행동

(1) 사건 이전: 단호하고 이성적인 거절

→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삼하 13:14a)

다말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암논의 집으로 간다.³⁰ 다말이 만든 음식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히브리어 ‘레비보트(רִיבֹבֹת)’는 하트 모양의 과자 혹은 ‘일종의 경단이나 푸딩’으로 번역되었는데 아픈 사람에게 치료의 효과가 있는 음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¹ 또는 ‘그 심장이 원하는 것’, 즉 아픈 암논의

27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지불하여야.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다.’(신 22:28-29, 새번역)

28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70(2018), 135-137.

29 삼하 13장 다말이야기 본문에의 곳곳에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산재해있다. 조 앤 해직, 윗글, 256.

30 다윗의 명령과 다말의 행동은 ‘왕의 제도’(삼상 8:10-18)가 경고하는 ‘딸들의 노예화’를 상기시킨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삼상 8:13)

31 맥카터는 본문에서 서술하는 요리 과정(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들고.. 구웠다, 삼하 13:8)이나 단어 바살(בַּסַּל, ‘삶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구웠다’로 번역)에 근거해서 과자보다는 경단이나 푸딩이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앤드슨도 이 제안을 따른다. P. K. McCarter,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

입맛을 돌아오게 할 그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³² 브루어는 아픈 암논의 기운을 차리게 하는(바라, בָּרָה) 음식(비르야, בִּירְיָה)을 만들어주는 다말의 행위가 생명을 주는 지혜의 역할(잠 3:18; 8:35; 16:22)과 일치한다고 해석한다.³³ 그런데 다말은 암논이 ‘보는 데서’(직역하면, ‘그의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주었다고 기록되었다. 다말의 ‘아름다움’이나 음식을 만드는 행위는 암논의 시선 앞에서 물질적인 대상으로 전락하게 한다.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무언가 하는 것은 암논의 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삼하 13:2b, 직역)에서 표현된 다말에 대한 암논의 관음적 욕망은 이제 암논의 눈앞에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⁴ 다른 누군가에게 ‘바라보임을 당하는 것’은 타자의 시선 속에서 사물, 객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의식과 생각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성은 부정되고 한 것 물건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³⁵

그러나 암논은 방에서 시중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명하고³⁶ 다말에게 침상으로 와서 자기에게 직접 과자를 먹여줄 것을 요구한다.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삼하 13:10a)는 암논의 요구는 앞에서 신하들에게 한 명령처럼 반드시 복종해야 할 왕자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말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따른다.³⁷ 침실에서 다른 이의 손에 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과 스킨십은 성적 관계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다. 암논의 계획은 그의 권력과 관계를 통해 쉽게 실행되었다. 그리고 다말

and Commentary, ab 9. (New York: Doubleday, 1984), 322. A. A. 앤더슨, 윗글, 300.

32 Hans W. Hertzberg, *I & II Samuel,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0), 323.

33 Deirdre Brouer, “Tamar’s Voice of Wisdom and Outrage in 2 Sam 13”, *Priscilla papers* 28/4(2004), 10.

34 Phyllis Tribble, 윗글, 43.

35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서울: 기파랑, 2008), 36.

36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삼하 13:9)는 암논의 명령에서 사용된 동사는 아차(אָצָה)의 히필동사로서 ‘궁중의 해산 명령 양식’(창 45:1)을 반영하며 왕정과 권력을 나타내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A. A. 앤더슨, 윗글, 300.

37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나’(삼하 13:10b-11a), Phyllis Tribble, 윗글, 44.

을 ‘붙잡고’(קָיַם)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בָּשָׁב)”(개역) “끌어안고 함께 눕자”(새번역)(삼하 13:11)고 말하였다. 암논은 다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이미 완력으로 다말을 붙잡았다. 폭력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다말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면서 ‘나와 동침하자’는 남자의 말은 이미 스스로 그의 범죄를 드러낸다. 그때 다말은 대답한다.

“아니라(לֹא)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עָנָה)하지 말라(לֹא)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הַלְבָּבוֹת)을 행하지 말라(לֹא)

내가(אֲנִי)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הֲתָ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אִי־לִבָּבוֹת)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삼하 13:12-13)

다말의 대답은 단호하고 이성적이다. 그것은 명백히 거절이며 저항이다. 그는 암논을 ‘나의 오라버니’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다시 상기시키고 암논에게 부정어(히브리어 알, לֹא) + 동사의 2인칭 남성 미완료태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분명히 노(No!)라고 거절하고 있으며 암논의 행동은 다말을 욕되게 (아나, עָנָה)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어 ‘아나’는 억압이나 착취에 의해 인간이 파멸되고 굴종될 때 사용된다(출 1:11; 신 26:6). 반 볼데(E. Van Wolde)는 창 34:2에서 사용된 동사 피엘 형태의 ‘아나’가 폭력이라는 물리적 힘과 강간의 성적 행위 뒤에 따라오는 ‘사회적/사법적 관점에서 개인 가치의 저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⁸ 그러나 창세기 34장 디나의 경우에도 ‘아나’

38 Ellen J. van Wolde, “Does ‘innā Denote Rape?: A Semantic Analysis of a Controversial Word”, *Vetus*

는 강압적인 강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임이 명백하고³⁹ 위의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암논의 강제적 폭력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다말은 이어 그 폭력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경고한다. 암논이 행하는 강압적인 폭력은 피해자인 다말의 인간성을 파멸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네발라, נְבִילָה)이 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네발라'는 율법을 심각하게 여긴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서 본문에서는 근친상간이 아니라 무력에 의한 강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⁴⁰

13절에서 다말은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써 '나와 너' 두 사람에게 일어날 불행에 대해서 경고한다. '나'는 결혼할 수 있는 자격, 지위, 미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너' 암논 자신도 어리석은 자(나발, נָבֵ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성서에서 '어리석음'(나발)은 불량하고 악하며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삼상 25:2 이하; 잠 9:13-18). 그러니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 대신에 다른 대안, 즉 아버지에게 청해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을 아내로 맞을 것을 제시한다. 다말은 그의 아버지를 '왕'으로 칭함으로써 왕의 강력한 권한을 상기시키고 다말에게 하려는 이 악한 일은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에 대한 범죄가 됨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⁴¹ 이러한 제안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왕족의 경우에는 친족 결혼이 허용되어 있었다는 현실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⁴² 어쨌든 이 모든 제안은 저항이다. 구약성서에서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호크마, חֵכֶּמָה)가 자신의 앞에 놓인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옳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른 길을 제시함으

Testamentum 52, 4(2002), 541.

39 권지성, "디나 사건에 대한 비평학적 접근법들(창세기 34장), in: 권지성 외,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 (서울: CLC, 2019), 30.

40 A. A. 앤더슨, 윗글, 301. '어리석은 일(네발라)을 하다'는 표현은 창 34:7; 삿 19:23 본문에서도 강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박유미, "왜 다윗은 다말의 부르짖음에 침묵했을까?", 50. in: 권지성 외,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

41 Deirdre Brouer, 윗글, 11.

42 김회권은 다말의 이 말이 위기탈출을 임기응변이라기보다는 왕실의 결혼 풍습에 관한 당시의 관례에 따른 현실적인 제안으로 본다. 김회권, 윗글, 173.

로서 어리석고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충고한다면(잠 8:1 이하)⁴³ 다말의 이 저항은 참된 지혜 그 자체이다.⁴⁴ 그러나 저항하는, 거절하는, 하지만 지혜로운 그녀의 ‘말’은 어리석은 암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암논은 그녀의 지혜를 거절하고 강제로, 즉각적으로, 센 힘으로 다말을 취한다.

“암논이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녀보다 힘이 세므로(하자크, פִּזְזָה, ‘그녀를 제압하여’)
 그녀를 욱보이고(아나, עָנָה)
 억지로 그녀를 눕혔다(샤카브, שָׁכַב).⁴⁵”(사역, 삼하 13:14)

이 구절에서는 창 34:2와는 달리 ‘아나’가 ‘하자크’(붙잡다)와 ‘샤카브’(눕다) 사이에 놓여있고 이 세 개의 단어가 함께 억지로 눕히는 육체적이고 공간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강간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⁶ 강간은 남성이 완력을 사용하여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일종의 억압 형태이며 오랜 기간 축적되어 형성된 여성 지배를 위한 사회적 산물이다. 여성은 언제 강간당 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길들여져서 또 다른 남성 지배자를 필요로 하고 남성은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여성의 종속을 강화시키게 된다. 강간은 단지 성적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한 힘의 행동이고⁴⁷ 상대방을 자신의 완벽한 통제 하에 두려는 욕망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권력

43 이은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여성의 지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6 (2008), 52.

44 트리블은 잠언에서 젊은 남성을 교훈하는 지혜 여성을 ‘너는 내 누이’(잠 7:4)라고 부르라고 권고하지만 본문에서 암논은 지혜 여성인 다말을 ‘내 누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악용하려 한 다고 지적한다. Phyllis Trible, *읽글*, 56.

45 미소리 텍스트에서 ‘샤카브’ 동사는 본래 티동사로서 ‘오타’(עָטָה, 그녀를)라는 3인칭 여성 대명사접미어가 달린 목적어를 가지지만 다른 사본들에서는 목적어 대신 전치사 ‘임마’(עִמָּךְ, 그녀와 함께)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후대 서기관들이 이 단어를 외설적인 것으로 여겨서 ‘그녀와 함께 눕다’로 읽게 하기 위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 A. 앤더슨, *읽글*, 296.

46 Ellen J. van Wolde, *읽글*, 541.

47 월터 부르크만, 『사무엘상 하』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29. 원제는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형 폭력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2) 사건 이후: 강한 항변 → “그러나 그는 그녀를 듣지 않았다”(삼하 13:16a)

다말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억압적, 폭력적 강간을 행한 암논은 다말을 ‘이것’이라고 부르며 쫓아내라고 함으로써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제 더 이상 가치없는 물건처럼, 내버려야 하는 쓰레기로 취급한다. 암논의 마음이 급격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관되게 다말이라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암논이 자기의 범죄와 마주했을 때 생기는 자기혐오로 인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관심의 대상을 옮기려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⁴⁸ 그는 자신의 잘못과 비난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르그만은 성적 욕망이 만족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질 수 있는 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⁴⁹ 성서 본문은 “그 후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삼하 13:15)고 말한다. 원하는 대상을 취하기 위해 사용된 힘과 권력은 이제 바로 그 대상을 미워하고 확대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오라, 나와 함께 눕자”(삼하 13:12)고 명령했던 암논은 이제 “일어나라, 가라”(삼하 13:15)고 명령한다. 이때에도 다말은 암논에게 항변한다. 바로 직전의 폭력적인 강간 사건 이후에도 다말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고 담대하다.

“옳지 아니하다(אֵלֹהִים, 있어서는 안된다. 그럴 수 없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הַרְעָה)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삼하 13:16a)

다말은 이제 암논의 행위를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옳지 않고 악한 것으로 규

48 이 갑작스런 ‘성적인 증오’는 암논이 처음에 가졌던 병적인 열정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미몽에서 깨어나서 양심의 괴로움을 자각함으로써 생겨난 심리학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Hans W. Hertzberg, *읽글*, 324.

49 월터 부르그만, *읽글*, 429.

정하지만 암논은 사건 이전에 다말의 말을 거절했던 것처럼(삼하 13:14a) 다시 한 번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직역, 삼하 13:16b)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을 질러버림으로써 어리석고 악한 일을 행하고야만다.

물론 다말은 그 사회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 즉 아버지와 남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결정권에 자신을 맡기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의 규율을 따르고자 하는 시대적 한계를 가진 여성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⁵⁰ 그러나 성적, 감정적 욕구에 근거한 암논의 짧은 말과 대조적으로 다말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긴 설득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옳은 판단과 행위를 요구하는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지혜의 말은 거절되었고 암논은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다말을 욕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었던 것이다.

(3) 사건을 드러내다: 다말의 울부짖음과 남자들의 침묵

쫓겨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던 채색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나왔다. 채색옷은 아마도 색동 소매의 긴 옷으로 그녀의 처녀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⁵¹ 요셉의 경우처럼(창 37:3) 왕의 딸로서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기도 하다. 채색옷이 찢어진 것처럼 다말의 특별한 지위와 미래 또한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머리에 재를 끼얹는 것은 애곡(욥 2:8), 회개(욥 9:3; 42:6)의 표시이고 옷을 찢는 것은 일반적으로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이며(수 7:6; 욥 1:20; 2:12) 울부짖음(자아크, *פּוּט*)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어 탄식하는 방법이다. 자아크는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50 신명기 22:28-29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다말은 다시 이스라엘의 법에 의지하여 암논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도록 호소하는 듯 보인다.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 시대의 사회는 강간당한 다말에게 다른 어떤 선택권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알리스 L. 라페이, 「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장춘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92. 원제는 Alice L. Laffey,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 A Feminist Perspectiv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51 A. A. 앤더슨, *윗글*, 302.

부르짖을 때 사용한 단어이며(출 2:23) 또한 부당한 고난을 당한 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법률상의 용어였다(신 22:23-29).⁵² 즉 울부짖음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고 옷을 찢으며 울면서 암논의 방을 나섬으로써 그 사건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창세기 34장에서 강간당한 디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다말은 자신이 성적으로 ‘떨시의 대상이 되어 해를 입고 학대당하고 결국 가치없는 것으로 폐기되었다’는⁵³ 사실을 슬픔의 행동과 울부짖음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울부짖음을 들은 남자들은 침묵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침묵을 요구한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모든 일을 알고도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삼하 13:20)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누이의 일로 암논을 미워하였으나 암논에게도 잘잘못을, 즉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삼하 13:22). 두 번에 걸쳐 암논을 ‘너의 오라버니’라고 언급하면서(삼하 13:20)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성폭력의 피해자 다말에게 침묵을 요구하고 범죄를 최소화하며 암논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⁵⁴ 앤더슨은 압살롬이 당시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이 가족 내의 사건이며 율법의 규정대로(출 22:16-17) 한다고 하더라도 암논 자신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내려질 수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34장의 시므온과 레위처럼(창 34:30-31)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법을 집행하겠다고 결심했을 것이라 추측한다.⁵⁵ 실제로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만 이 년 후

52 김엘리, “강간당하고 버려진 여인-다말”, in: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엮음, 『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01. 삼하 13장에서 사용된 ‘차이크’(צַיִק, 울부짖다)는 ‘차이크’(צַיִק, 울부짖다)와 동일한 의미로 고통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본문에서 혼용되어 나타난다.

53 블리트는 강간당한 여성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이 ‘더럽혀짐’의 감정이 디나의 침묵 뒤에도 숨어있으리라고 추측한다. Caroline Blyth, “Terrible Silence, Eternal Silence: A Feminist Re-Reading of Dinah’s Voicelessness in Genesis 34”, *Biblical Interpretation* 17 (2009), 500.

54 Phyllis Trible, *읽글*, 51.

55 A. A. 앤더슨, *읽글*, 302-303.

압살롬은 암논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자신의 종들에게 명하여 술 취한 암논을 죽이게 한다. 함께 간 다른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고 암논만 죽인 것은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로 행한 일이라고(삼하 13:32),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의 입을 통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순전히 사적 복수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복수를 명목으로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왕의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암논의 제거는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막강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한 것이고 그 의도는 결국 압살롬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삼하 15장) 가시화된다.⁵⁶

아버지 다윗 또한 다말이 당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침묵한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다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 나중에 큰 아들 암논의 죽음(삼하 13:31, 36)과 심지어 자신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죽음(삼하 18:33; 19:4)에 통곡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마소라 본문에는 없지만 칠십인역(그리고 콤란사본A)은 다음 내용을 보충한다. “그러나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못된 짓(문자적으로는 마음을 저지하지 않았다).⁵⁷ 장자인 아들에 대한 사랑은 딸이 당한 고통과 부르짖음에 침묵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의 침묵은 왕의 의무인 ‘정의와 공의’(삼하 8:15)에 역행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왕권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누이동생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욕망했던 왕자 암논, 계락을 꾸며 암논에게 그의 욕망을 실현시킬 기회를 제공한 요나답, 자신의 딸을 범죄의 위협에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일어난 성폭행에 대해 침묵하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상처 입은 딸을 외면하고 가해자 아들의 편에 선 아버지 다윗,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음에도 가족관계임을 상기시키며 지금은 아

56 그렇기에 이회학은 압살롬에 의한 암논의 제거(삼하 13:23 이하)를 압살롬 반란(삼하 15장)의 서곡으로 본다. 이회학, *윗글*, 169.

57 A. A. 앤더슨, *윗글*, 303.

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오빠 압살롬. 이 모든 남자들은 다말에게 행해진 끔찍한 성범죄의 공범자이다. 그들이 가진 권력은 그 범죄를 가능하게 했고 그 범죄를 덮었으며 그 범죄 위에 자신들이 세운 제도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자들은 가족의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피해자인 여성, 자기 딸이자 동생인 여자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미래를 빼앗았다. 가부장제리는 제도적 권력은 통제와 권력 지향, 정서 억제와 같은 남성적인 가치로 이루어진 위계적 사회구조를 구성하며 그 안에서 한 여성을 희생자로 만든 것이다.

3) 다말(‘종려나무’): 성적, 제도적 폭력 속에 살아남다.

하지만 다말은 살아남았다. 그는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삼하 13:20). 아마도 결혼하지 않은 채로, 마치 남편이 죽은 과부처럼 쓸쓸하게 지냈다는 뜻일 것이다.⁵⁸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처량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샴(שמ)은 성서에서 주로 불임 여성이나 황량한 들판, 혹은 파괴된 예루살렘에 대하여 사용된 것으로 형태가 없고 비었으며 어둡고 고립된 상황을 나타내며 사람이 ‘처량하게’ 산다는 것은 생명없이 죽은 듯이 사는 삶이다.⁵⁹ 성서에서도 더 이상 다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형이자 왕세자였던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압살롬의 딸에 관한 설명이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삼하 14:27) 압살롬은 자신의 딸에게 다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으며 그는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말의 삶은 계속된다.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다. 그 다말들은 아름다운 여자들이다.

58 앤더슨은 다말의 처지를 압살롬의 반란 때에 공개적으로 성폭행당한 다윗의 열 후궁의 상황(삼하 20:3)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윌글, 302.

59 구약성서에서 shamam은 총 91번 나오는데 그 중에 8번만이 사람에게 대하여 사용되었다(삼하 13:20; 사 54:1; 62:4; 애 1:13, 16; 3:11; 4:5; 욥 16:7). Deirdre Brouer, 윌글, 10, 13 각주 1).

다말은 여전히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물리적, 제도적, 경제적 힘에 의해 강제로 강간을 당한다. 그들은 지혜로운 말과 용기있는 행동으로 맞서지만 세상엔 어리석고 악한 일들이 더 자주, 더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다말은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에 응답하실 것이다. 다말(דָּמָא)은 히브리어로 종려나무, 야자나무를 뜻한다.⁶⁰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추야자(date palm)는 5000년 전부터 재배했으며 한그루에서 매년 250kg의 열매를 생산하고 종려나무의 잎사귀는 승리의 영광과 영예를 의미한다. 이전에도 살아왔고 여전히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많은 다말들은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4. 나가는 말: 권력형 성폭력의 악순환

다말 이야기는 다윗의 왕궁에서 왕과 아버지라는 권력의 비호 속에, 가족 관계라는 권력 구조 속에 이루어진 성폭행 사건을 증언한다. 다말은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고 성폭력의 위협에 처하지만 지혜로운 말로 거절하며 저항한다. 하지만 그 지혜는 거절되고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성적 범죄가 일어나며 그 일은 어리석고도 악한 죄악임을 다말의 입을 통해서 고발한다. 다말은 자신이 당한 일을 숨기지 않고 울부짖음으로 드러내어 도움을 요청하지만 주변 남자들, 즉 아버지와 오빠는 침묵하고 다말도 침묵을 강요받게 된다. 다말에게 저질러진 이 성폭력 사건은 압살롬과 암논,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살인과 배반, 축출 같은 또 다른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다말은 살아 남았으며 압살롬의 아름다운 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성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

그러나 다말 이야기 이전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

60 A. A. 앤더슨, *윗글*, 299.

한 것(삼하 11장)은 안정되고 강력한 다윗 왕국에서 시작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를 권력에 의해 동침하고 임신케 하였으며 우리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다가 실패하자 우리를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든다. 왕권에 의해서 강간과 속임과 살인이라는 범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의 누이동생을 강간한 이복형제 암논을 살인함으로써 복수했던 압살롬 또한 권력형 성폭행을 저지른다(삼하 16:20이하). 압살롬은 아름다운 외모와 정의로운 판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 다윗이 아직 살아있을 때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삼하 15장).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면서 궁에 후궁 10명을 남겨 놓고(삼하 15:16)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다(삼하 16:21-22). 이와 같이 선왕의 여인들을 차지하는 행위는 압살롬에게 새로운 왕권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⁶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아버지 다윗을 모욕하고 아버지가 죽었음을 암시하고 따라서 압살롬의 지지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⁶²

구약성서에서 증언하는 다윗과 압살롬의 성폭력은 단지 개인의 성적, 도덕적 일탈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명백히 권력형 성폭력으로, 권력을 이용하고 권력을 얻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 힘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폭력들인 것이다. 사사기 19-21장에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들이 사사시대의 종말을 가져오고 왕정 시대의 이유를 제공한 것처럼,⁶³ 다윗 왕궁에서의 성폭력 사건들은 결국 왕정 시대

61 M. Tsevat, "Marriage and Monarchical Legitimacy in Ugarit and Israel", *JSS* 3(1958), 241.

62 A. A. 앤더슨, *룻*, 360.

63 폴친은 삼하 13장과 삿 19-21장이 유사한 관심사를 가지고 동일한 어휘들을 사용하여 '아들들'과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Robert 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 History: Part Three 2 Samue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136-138.

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비록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자들의 목소리를 성서 본문에서는 듣기 어렵고 오히려 그 여자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성서 해석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남아있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성서의 신명기 역사가는 왕정의 어두운 면, 왕궁 속에서 일어난 성적 범죄 사건들을 은폐하지 않는다. 유부녀였던 밋세바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다말, 다윗의 남겨진 후궁들에게 저질러진 끔찍한 범죄를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왕정의 한계, 왕권의 폭력성을, 인간의 악함과 나약함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 증언은 권력을 가진 남자들의 범죄와 폭력적 체도를 고발하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공감하게 한다.⁶⁴ 이 성서 본문들은 과거 3000년 전 쯤에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졌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은 물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함부로 성적 폭력을 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은 ‘야웨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삼하 11:27)이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 권지성, “디나 사건에 대한 비평학적 접근법들(창세기 34장), in: 권지성 외,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서울: CLC, 2019), 23-45.
- 김순영, “여성신학적 성서해석 방법론”, in: 한국여성신학회 엮음, 『성서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57-83.

64 피오렌진은 이것을 고통받는 자와의 연대를 꾀하는 ‘회상의 해석학’이라고 말하는데 성서 속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림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고 동시에 여성이 동등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 존재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시대와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순영, “여성신학적 성서해석 방법론”, in: 한국여성신학회 엮음, 『성서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77.

- 김엘리, “강간당하고 버려진 여인-다말”, in: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엮음, 「성서의 여성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94-204.
- 김회린,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하」(서울: 복있는 사람, 2009).
- 김호경, 「여자, 성서 밖으로 나오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70 (2018), 125-155.
- _____, “왜 다윗은 다말의 부르짖음에 침묵했을까?”, in: 권지성 외,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서울: CLC, 2019), 46-65.
-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서울: 기파랑, 2008).
- 손중희, “אני אמנלך 다윗 왕위 계승 순위의 뒤틀림”, 「구약논단」 60 (2016, 6), 98-131.
- 왕대일, 「구약신학」(서울: 성서학연구소, 2010).
- 이금재, “사무엘상 8장 11-17절의 왕의 권리: 왕의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글”, 「구약논단」 66 (2017), 14-41.
- 이은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여성의 지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6 (2008), 33-57.
- _____,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아름다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2011), 5-26.
- 이희학,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A. A. 앤더슨, 「사무엘하」(서울: 솔로몬, 2001). 원제 Anderson, A. A., *II Samuel*, WBC 11, Waco: Word Books, 1989.
- 스기타 아쓰시, 「권력」(이호윤 역), (서울: 푸른역사, 2015).
- Avoiz, Michael, “The Motive of Beauty in the Books of Samuel and Kings”, *Vetus Testamentum* 59 (2009), 341-359.
- Bakon, Shimon, “Jonadab, ‘Friend’ of Amnon”, *Jewish Bible Quarterly* 43/2 (2015), 101-105.
- 레이몬드 A. 벨리오티, 「권력의 조건: 억압, 복종, 저항 그리고 소통에 관하여」

- (한누리 역), (고양: 지금이책, 2017). 원제 Belliotti, Raymond Angelo, *Power: oppression, subservience, and resistance* (New York: SUNY Press, 2016).
- Blyth, Caroline, "Terrible Silence, Eternal Silence: A Feminist Re-Reading of Dinah's Voicelessness in Genesis 34", *Biblical Interpretation* 17 (2009), 483-506.
- Brouer, Deirdre, "Tamar's Voice of Wisdom and Outrage in 2 Sam 13", *Priscilla papers* 28/4(2004), 10-13.
- 월터 부르그만, 「사무엘상. 하」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 Brueggemann, Walter, *First and Second Samuel*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트렌트 버틀러, 「사사기」 (조호진 역), (WBC 8; 서울: 솔로몬, 2011). 원제 Butler, Trent C., *Judges* (WBC 8;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6).
- Crüsemann, F., *Der Widerstand gegen das Königtum. Die antiköniglichen Texte des Alten Testaments und der Kampf um das frühen israelitischen Staat* (WMANT 4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게오르크 포오러, 「이스라엘 역사」 (방석중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9). 원제 Fohrer, Georg, *Geschichte Israels: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Heidelberg: Quelle und Meyer, 1982).
- Hertzberg, Hans W., *I & II Samuel*,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0).
-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4). 원제 Klein, Ralph W., *I Samuel* (Waco: Word Books, 1983).
- 알리스 L. 라페이, 「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 (장춘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원제 Laffey, Alice L.,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

- ment – A Feminist Perspectiv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 McCarter, P. K.,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 and Commentary* (ab 9; New York: doubleday, 1984).
- 캐롤 A. 뉴섬/ 샤론 H. 린지 엠크,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이화여성신학 연구소 역), (구약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 Newsom, Carol A., & Ringe, Sharon H., *Women's Bible Commentary* (Expanded Edi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Otto, E., *Theologische Ethik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Kohlhammer, 1994).
- Polzin, Robert, *David and the Deuteronomist-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Three 2 Samue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 Rost, L., “Die Überlieferung von der Thronnachfolge Davids”, in ders., *Das kleine Credo und ander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Heidelberg: Quelle&Meyer, 1965), 119-253.
- 프리쯔 슈톨츠, 「사무엘상. 하」(박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원제 Stolz, Frit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BK.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 Tsevat, M., “Marriage and Monarchical Legitimacy in Ugarit and Israel”, *JSS* 3(1958), 237-243.
- Van Wolde, Ellen J., “Does ‘innâ Denote Rape?: A Semantic Analysis of a Controversial Word”, *VT* 52, 4(2002), 528-544.
- Würthwein, E., *Die Erzählung von der Thronfolge Davids - Theologische oder politische Geschichtsschreibung* (Theologische Studien 115;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4).

검색어

다말

압살롬

암논

성폭력

다윗 왕위 계승사

왕의 제도

Power and Sexual Violence: Focused on 2 Sam. 13: 1-22

Eun-Ae Lee

Lecturer at Ewha womans university

München Universität, Dr. Theol.

The story of Tamar in the Second Samuel 13 was understood as an incident in the literary context of the struggle for power of the sons who surrounded the throne in the court of the powerful King David. But this paper defines the horrific incident that happened to Tamar as a power-related rap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power of the monarchy and patriarchal family relations, and reveals that it serves as a pessimistic harbinger of the tragic history of the Davidic monarchy and the negative fate of the kingdom as the judgment of God (2 Sam. 12:10-13).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ooks describes the kingdom or monarchy of Israel from an already critical point of view and from a theological point of view of interpreting it thoroughly in relation to Israel's relationship with the God of Israel, Yahweh. The formation of a powerful kingdom in Israel has led to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nation's

order internally and to defending foreign invasions or gaining an advantageous position in diplomatic relations externall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kingdom based on a centralized and powerful royal authority was built on a patriarchal system that prioritizes the authority of fathers, men and elders,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new social classes, such as political royalty and nobility, and thus in various conflict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between the tribes.

Amnon, David's eldest son, made the beautiful sister Tamar the object of his sexual desire. For Amnon, Tamar was not one person as an equal, independent entity or his own sister, something that he wanted to have and do with her, and her thoughts and desires were not important. The idea that had sickened Amnon was already the beginning of violence and rape, and the men around him, including Jonadab and David, were facilitators in the rape. Tamar clearly refused Amnon, who was trying to rape her, and offered the possibility of a solution in wise words, but in the end, her wisdom was rejected and Amnon forced her to fulfill his desires and raped his sister. After the incident, Amnon again rejected Tamar's words of wisdom warning him, and drove her out the door. Although Tamar exposed the sexual assault outside, the men around her remained silent about the incident and forced her to remain silent.

The tragic incident that happened to Tamar should be interpreted not just as a premise of the succession battle between the two princes, but rather around the rape victim. The horrific and brutal sexual assault, which took place in the non-visible power structure of father-son-centered family relations, is, after all, an indication of the violence of power within the kingdom of David centered on the powerful kingship, its subsequent failure of the monarchy, and ultimately, of the collapse of the kingdom.

Keywords

Tamar

Absalom

Amnon

sexual violence

David's succession narrative

the institution of the king

- 투고일: 2019년 7월 13일
- 심사일: 2019년 7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7월 29일

www.kci.go.kr